

책속인물에게 보내는 제6회
한글손편지

내 생각엔 이 세상에
 모든 부모님들께선 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뜻이 담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 같아
 네가 린드그렌 선생님의 말괄량이 삐삐를 좋아
 해서 여러 가지 삐삐 이야기책을 읽는 것처럼
 나도 루시 모드 몽고메리 선생님의 빨강머리앤을
 아주 좋아해. 빨강머리앤 책을 읽으면서
 “앤은 어쩜 저렇게 멋진 말들을 잘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중에, 내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말은 “미래가 제 앞에 쪽 뻗은 곧은
 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걷다 보면 길도퉁이에
 이르고,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지 모르죠.

전 가장 좋은게 있다고 믿을래요! 벌써부터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대요!”라는 말이야. 와~!! 정말 멋진 말
 같지 않아? 나도 빨강 머리 앤처럼 참 멋지고 아름다운 말
 을 하고 싶어. 그럼 얼마나 좋을까? 내가 비음이 널 알게
 되면서 린드그렌 선생님 책을 읽기 시작한 것처럼 비음이 너도
 빨강 머리 앤을 읽어보길 추천해~
 참! 그러게 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여행은 잘 다녀왔는지 궁금하다. 비음이 너는 요즘도 자주
 헌책방에 가고 있니? 나중에 내가 너를 만나게 되면 우리 둘이
 헌책방에 가서 그러게 언니와 온종일 린드그렌 선생님과
 삐삐, 에밀미셸, 그리고 빨강머리앤 이야기도 하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그러게 언니에게 내가
 그러게 언니를 무척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줘~

